千年古都에 우뚝 선 新 랜드마크

〈천년고도〉

(재)중도,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 개원

천년고도 경주에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한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명상과 힐링을 위한 대규모 수행시설이 위용을 나타냈다.

(재)중도(이사장 장세희)는 7월 6일 경주 보문단지 내에 위치한 '황룡원 중도타워'를 언론에 공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창탈과 한국사회의 정신문화 함양을 위해 명상과 인문학, 답사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故장경호 거사 유지 계승해
아들 장상건 회장 건립 발원
2011년 착공, 5년 대작불사

신라 황룡사 9층 목탑 재현
지상 9층 · 69m 위용 '자랑'
명상 · 경주 불교유적 답사 등
7월부터 상설 프로그램 운영
인문강좌 · 전시 등 확대 계획

장경호 거사 불법홍포 유지 이어

(재)중도가 운영하는 황룡원은 동국제강 그룹의 창업자이자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대중불교 운동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한 장상건 동국산업 회장의 발원에서 비롯됐다. 장상건 회장은 故 장경호 거사의 다섯째 아들이다.

운영 주체인 (재)중도 역시 불법홍포와 한국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수련 시설 건립 · 운영을 목적으로 장상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기도 하다.

중도타워 건립 당시 자문 역할을 했던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교수는 "자문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장상건 회장은 '불교의 요체는 중도'라고 뚜렷이 밝혔다. 불교의 '중도'를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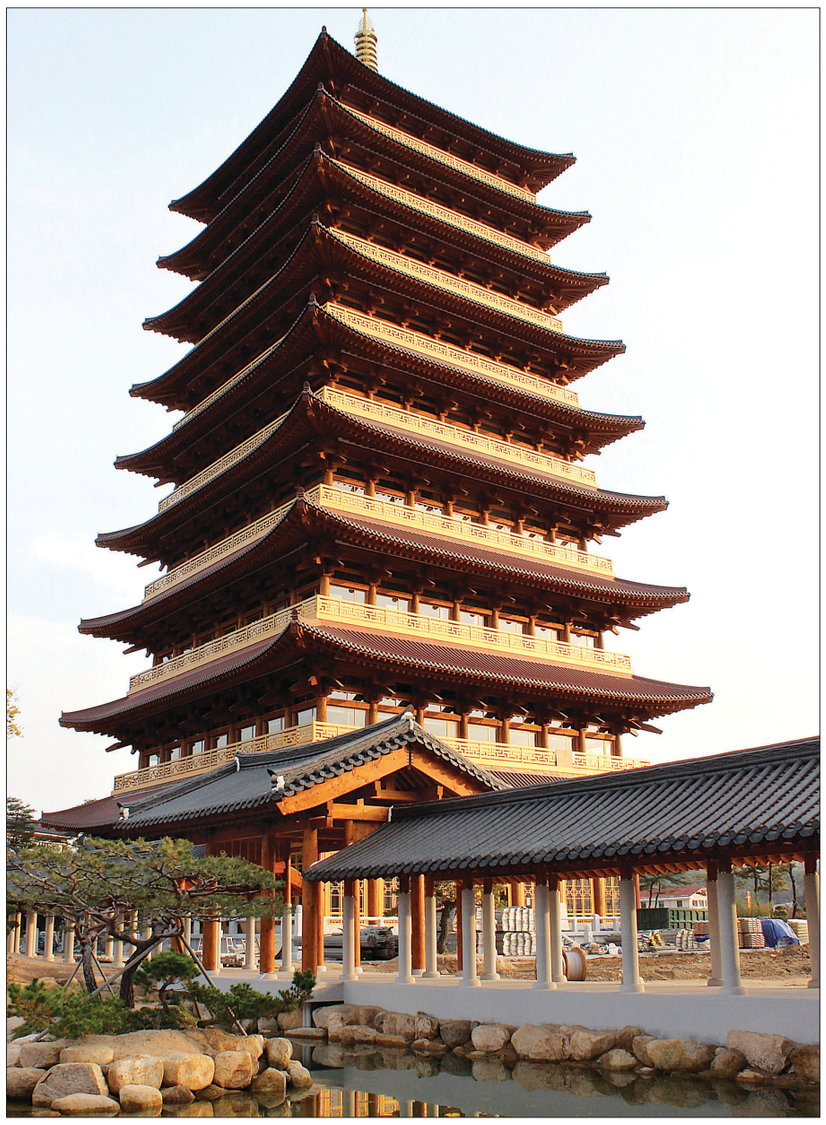
이퇴은 황룡원 원장은 "장상건 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경주 황룡사지를 오가며, 그곳에 있던 9층 목탑을 재현해 현대적 수행공간으로 활용하기를 구상하고 발원했다"면서 "보문단지 내에 부지를 마련하고 2011년 착공에 들어갔고, 이제 일반 대중을 위해 중도타워를 공개하게 됐다. 무엇보다 5년의 공기(工期)동안 크고 작은 사고 한번 나지 않은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겠는가"라고 웃어보였다.

이 같은 발원을 근간으로 한 중도타워는 2011년 7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5년여 불사 끝에 개원하게 됐다.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한 중도타워는 현대식 철골로 구조를 세우고, 목재를 사용한 전통 목조 방식으로 외형을 완성했다.

그 규모 역시 주목할 만하다. 연건평 1,637평, 지하 1층, 지상 9층에 높이는 68m에 달하며, 옆에는 2,700평의 동국산업 연수원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중도타워 곳곳엔 불교문화가

중도타워는 불자와 명상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에게 최적의 장소이다. 1층은 로비와 전시공간, 2층 숙소, 3층 명상실, 4~5층 다목적 교육홀, 6~7층 VIP숙소, 8층 스카이라운지, 9층 법당(대원정사)으로 구성돼 있다.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의 전경.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했다.



중도타워 건립에는 통도사 서운암 성파 스님의 지도가 있었다. 중도타워와 그룹 연수원을 통칭하는 황룡원의 현판은 성파 스님이 직접 휘호를 썼다.

김개천 국민대 교수가 담당한 내부 인테리어 역시 불교적 요소가 강하다. 당장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석굴암 입구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이 눈에 띈다. 천정 역시 불교를 상징하는 '卍'자로 디자인돼 있다.

타워 외부 의장에서도 파만자 난간이 사용됐다. 이는 안압지 출토 목부재 파만자 난간 ·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난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3층 명상실은 현대적으로 만들어졌다. 남녀 출입구를 구분해 편안한 수행복으로 환복할 수 있게 했고, 층고를 낮춰 좀더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 같은 수행시설 건립에는 여러 불교계 인사들의 자문과 지도도 한 몫을 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인 통도사 서운암 성파 스님이 대표적이다. 성파 스님은 황룡원의 요청으로 중도타워에 다녀갔고, 법당과 명상시설 건립에 조언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룡원의 현판 휘호를 직접 쓰기도 했다.

상설프로그램 운영… 힐링 명소로

개원 준비를 마친 중도타워는 7월부터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명상실을 활용한 '중도명상'이다.

전통 명상법을 생활인에 맞게 대중화한 '중도명상'은 생활인 과정과 CEO 과정으로 나눠 월 1회 운영된다. 생활 명상 코스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1기를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 3일(2기), 11월 11일부터 13일(3기)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매 기수마다 불국사 부주지 철산 스님, 윤성식 고려대 교수 등의 특강도 진행된다.

CEO 명상코스는 8월 13일부터 15일, 10월 28일부터 30일, 12월 9일부터 11일, 3차례 진행되며, 해인사 백련암 원택 스님,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 등이 특강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중도타워는 (사)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과 협력해 경주 남산불적 답사코스도 상설로 진행한다. 남산 불적 답사코스는 신라문화원이 20여 년 동안 운영해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1박2일 코스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중도타워는 7월부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학교, 사찰, 신행단체, 그리고 일반단체에도 실비로 개방해 명상과 인문학 특강, 문화행사, 성지순례, 경주 유적지 답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타워에 대한 일반 관람은 오는 8월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매일 두 차례 개방한다. 신청은 황룡원 중도타워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이퇴은 원장은 "중도타워는 불교 중도사상의 실천과 한국 정신문화 창달을 위해 건립된 수행시설"이라면서 "우선적으로는 처음 목적대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인문 강의, 전시 대관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원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전시는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현재 통도사 서운암 성파 스님의 작품 전시회를 기획 중"이라며 "대관도 이뤄지는 만큼 성지순례와 답사를 위해 경주를 찾는 많은 사찰과 불교단체 등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054)760-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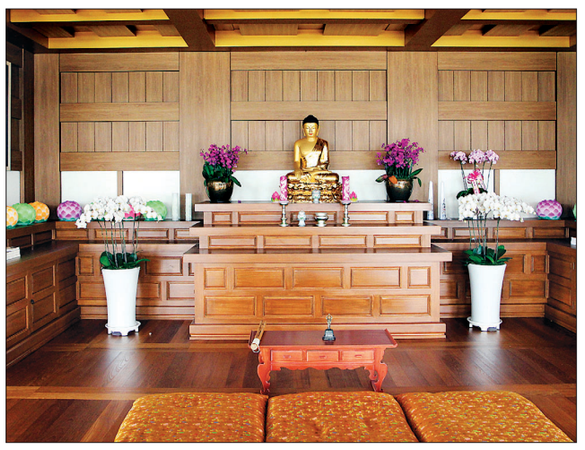
경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도타워 1층 로비. 석굴암 입구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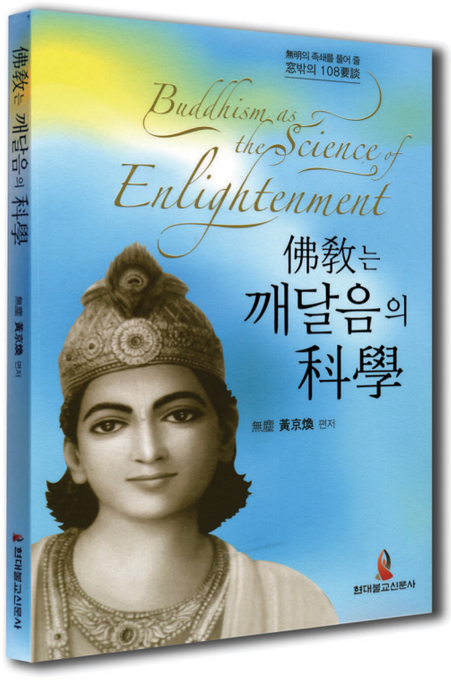


중도타워 3층 명상실. 층고를 낮춰 좀 더 편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중도타워 9층에 마련된 법당. 대원정사 경주분원으로도 활용된다.

근본불교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길어올린 영원한 자유인의 길



* 무진 황경환 편저 | 신국판 | 280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無明의 족쇄를 풀어 줄 窓 밖의 108 要談

佛教는 깨달음의 科學

Buddhism as the Science of Enlightenment

황경환은 하늘이 손수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가 펴낸 수상집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의 원고를 읽어 보며 불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가 원효나 의상 같은 고승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칸트나 헤겔 같은 논리를 가졌다는 말도 아니지만, 신라의 옛 서울에 터를 잡고 작은 사업을 하나 일으켜 최선을 다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본받으려는, 또 하나의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인간 황경환의 모습이 아름다워 이 글을 쓰는 바이다.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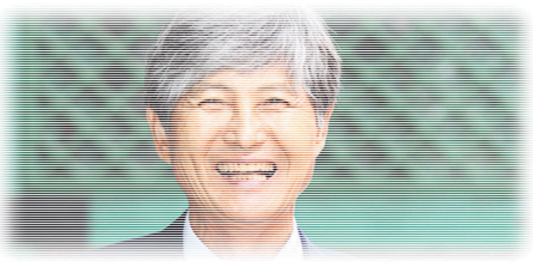
주문
054) 744-8211~2
팩스 054) 744-8213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요담을 읽다보면, 많은 경전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통찰에도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된다.

—퇴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이 책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근본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그가 인용한 불설은 주로 5부 니까야라는 문헌인데, 부처님의 초기 음성에 대한 가장 가까운 내용들이다. 둘째는 불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다.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요청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풀어쓰려고 하는 노력이 값지다. 따라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겠고, 또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鄭柄朝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파(世波)가 그대 앞에 닥친다 해도 그것에 정복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직 이 길을 꿋꿋이 걷고 또 걸어서 언젠가 그대가 의지하고 있는 오온의 쪽배가 가라앉기 전에 반드시 법을 보고 법을 알아 도(道)와 과(果)를 성취토록 하소서."

— 발원문 중에서